



머썬 (조각품) 이길래

인터뷰

인간미 깃든 조각품 만들터...

(동 아 미 술 상) 의 이길래 (석사과정·미교)

나름대로 자신의 길을 충실히 개척하는 사람이 주변 가까이 있다는 것은 모든 이에게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다. 이번에 90년도 동아미술제 조각부분을 수상한 본교 미술교육학과 대학원생 이길래군도 우리 가까이에서 치열한 예술의 길을 걷고있는 미술학도이다.

“섬짓함까지 주는듯한, 가장 현대적인 상징성을 띤 기계를 도입하여, 그것을 변조하고, 현대감각을 파괴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인간성의 회복을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수상작 ‘머썬’을 이렇게 설명한 이길래군은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것이지만, 실재적인 작업은 약1개월이 소요됐다고 한다. 또한 ‘작업기간동안 용접작업이 좀 힘들었고, 무엇보다 표현에의 어려움이 컸어요.

다시말해, 머릿속에서만 뚫고 있는 관념을 실제 사물에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라고 작업도중의 어려웠던점을 밝혔다.

대학교 4학년때 조각품 ‘얼어 버린 성’으로 중앙미술대전 장려상을 수상했고, 지난해엔 ‘어느 고가로부터’로 제8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에 올랐던 이길래군의 창작에의 열정은 사뭇 뜨겁다. 미술교육학과라는 특수성으로 예술활동 영역에 어느 정도의 제약이 따랐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더욱 열심히 파고들려 노력했죠. ‘라미 뒤이어 평소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스승에 이종각(본교 사범대·미교과)교수를 꼽았다.

회경 등에 위치한 루브르미술관의 작업실로 견학하고 있으며

‘자코메티의 작품들을 좋아합니다. 그의 작품에서 보이는 극히 원시적이고 인간적인 느낌들을 좋아하죠. 제 작품의 경향도 원초적이고 함도적인 색깔이 짙습니다.”라며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예술세계도 같이 덧붙였다. “현대사회의 접점 소멸해가는 인간성의 복원이 제 예술이 나아갈 방향일 것입니다.”

우선 빠른 시일안에 첫개인전을 갖고픈 이길래군의 조용한 수상소감. “아직 시작이지만, 제 예술과 작업이 다소 인정을 받았다는 것에 더욱 의욕이 생깁니다. 계속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6월 프레스센터에서 있으며, 수상작품 ‘머썬’은 오는 9월까지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경)

故이상오 학형을 생각하며...

학형 보시오

지금은 천국에서 큰눈을 가지고 우리들을 바라볼 학형을 떠올리니 깊은 서러움이 앞서오 크고 또렷도량한 목소리로 외쳤던 신입생 선서의 메아리가 미처 되돌아 오기도 전에 학형의 모습은 교정에서 찾을 길이 없구려

나는 비록 학형과 단 한마디 대화도 없이 아쉽게 학형과 헤어졌지만 젊은 가슴에 한없이 크게 품었던 원대한 민족 한의확도의 꿈은 학형과 나 사이에 어떤 커다란 우정을 심어주었던 것 같소

그대의 영혼이 숨쉬는 이 교정에는 어찌 어느 덧 봄의 전령이 오려하오

학형!

젊은 경희인으로서 꽃피는 교정을 단 한번도 거닐어 보지 못하고 먼저 간 학형을 생각하니 슬픔에 앞서 허무한 느낌이 드는구려

하지만 우리 민족 한의예과 학우 7백여명의 가슴과 경희 1만인의 가슴 속에 학형은 영원히 살아 숨쉬수 있을 것이요

그대의 꿈은 우리 하나하나의 뜨거운 가슴으로 실현된다고 나는 믿소

먼저 갔으나 아직은 우리와 같이 할 학형이 되어주시오.

그리하여 아직은 식지않은 그대 가슴의 피를 나와 우리 학우들께 나누어 주시오

학형!

진정 진정! 영원히 남을 학형의 모습을 그리며 저리도록 슬픈마음을 간소한 몇자의 글로 달래려 하오

남은 일들은 모두 우리에게 맡기고 학형께서는 부디 편안한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길 빌겠소.

단기 4323년 3월 13일

학우 김 경 호

남북한 통합론

서평

조정원 著

‘남북한 통합론’

통일문제는 여전히 우리민족의 지상과제로 남아있다. 분단 반세기 가까이 오고 있는 시점에서 되돌아 볼 때 우리민족이 분단과 대립으로 부터 받아 온 고통과 피해는 엄청난 것이었다. 같은 민족이면서 상이한 정치적 실세들 간의 갈등 때문에 왕래와 접촉조차 할 수 없었으며 또한 군사적 대결과 위협으로 인해 크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것이 분단

의 현실이었다. 이 현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분단현실을 극복하고 통일문제를 실현하려는 노력은 다방면에 걸쳐 부단히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성과는 많지않은 상태에 있으며, 이제 동서화해 체제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일에의 접근도 새삼 강조되지 않을 수 없는 역사적 상황에 우리민족이 처해 있는 것이다. 사

다양한 통합의 방법과 제 이론 제시
분단 이후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고찰

출간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책의 특징은 제목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통합의 개념을 중심으로 남북한 통일문제를 서술해 보려고 한 것이다. 간단히

조교수의 저서가 제시하고 있는 통합개념은 남북한통일문제를 접근하는데 유용한 분석적 도구가 될 수 있다.

본래 별다른 루멘대 학원 박사학위는론으로 작성한 것을 보

여는 다양한 통합의 개념들과 이론들을 다원주의,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및 연방주의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비교적 이해하기 용이하게 기술하였다. 그리고 아울러 그러한 통합이론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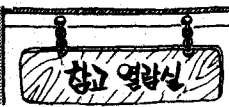
이 한반도 현실에 어떠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기능성의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한편 이 책은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분단의 기원을 역사적으로 분석, 서술하면서 분단 이후 남북한이 제시해 온 통일 정책이나 방법들을 비교, 검토했다. 분단의 기원과 통일을 위한 방법들을 함께 다룬 점에서 이 책은 어느 경우 보다도 한반도문제를 포괄적으로 인식,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결국 이 책은 남북한통일의 방법을 이론과 실천의 두 측면에서 취급했다는 이유때문에 특별히 주목을 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책은 통일과제를 연구하는데 있어 다 같이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신정현
(경대교수·정치)



Neo-Marxism은 1920~30년대 서구

내오람시즘

파시즘에 대한 저항과 레닌 사후 권위주의적 교조주의적으로 강화되는 이른바 스탈린형 마르크스주의와 대비되어 당시 서구의 비(非)마르크스주의적인 제 사상과의 상호비판·침투를 통하여 형성된 서구 마르크스주의를 말하며, 일종의 수정주의이다.

현대 수정주의의 특징이기도 하다 Neo-Marxism 역시 진정한 마르크스 철학의 재건자로 등장한다. 그들은 청년마르크스와 성숙한마르크스를 대립시켜, 마르크스 초기, 저자에 주목하고, 경제학·철학 수교를 왜곡하여 이해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 철학을 ‘인간의 철학’ 혹은 ‘실천의 철학’으로 변질시키고, 인간의 소외와 그 극복에 대한 추상적 휴머니즘을 이구동성으로 외친다.

‘역사와 계급의식’에서 의식적 주체의 능동성을 강조한 루카치를 그 원류로 사르

인간성소외의 극복을 위한 수정주의

트르의 실존주의적 마르크스주의, 프로이트적 마르크스주의와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등,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이 그 대표적 이론이다.

이들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정통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역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실천적 주장보다는, 사회주의와 휴머니즘의 관계는 어떠한고, 역사적 필연성과 인간의 자유와의 관계는 어떠한고, 현대사회 철학에서 변증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다룬다.

그들은 후기자본주의사회의 인간소외·탈인격화·개인화 등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르크스 이론은 필연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비판이론은 마르크스주의적 객관주의와 실증주의적 과학주의에 대한 엄격한 비판에서 발전되었고, 이러한 비판을 통해 당시의 사회에 대해 세찬 비난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실제로 그 비판이 사회에 충격을 가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마르크스가 적절히 지적한 바 오히려 부르주아 사회를 지속시키는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서 정 상 (본교 석사과정·사학)

국어국문학과를 주축으로 한 교내 전체 차원의 ‘한빛 문화회’ (회장·황범주, 국문·84)가 이달중 그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창작반(현재 시, 소설반)과 문예이론 연구반으로 나누어 문학에 대한 관심의 새로운 교정부터 시작하여, 초보적 문예이론의 학습과 개인적 창작, 그리고 조직적 집단창작을 목표로 하는 ‘한빛문화회’는 진보적 민족문학을 구현하기 위한 모임이다.

현재 9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한빛 문화회’는 교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현시기 지녀야 할 문학관과 문학인의 임무를 주제로

약 1년후 그동안의 창작물과 연구 성과물을 모아 작품 집도 엮을 계획이다.

또한 문화회 창립을 맞아 국문과 학회 시작창부와 공동으로 이번주 중에 ‘현시기 문학관과 문학인의 임무’에 관한 소설가 윤정모의 초청강연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학내의 개별적 문학모임들이 직접적인 창작을 등한시하고, 정치세미나 등 이론적·사회과학적 학습에만 치우쳤던 오류를 반성하면서, 진보적·민족문학의 추구와 함께 학내 문예운동의 강화를 꾀하고자 합니다”라고 회원인 문용민군은 창립의의를 밝혔다.

진보적 문학회, 한빛, 창립
소설가 윤정모 초청강연 가져

문화단신

노동영화, 파업전야, 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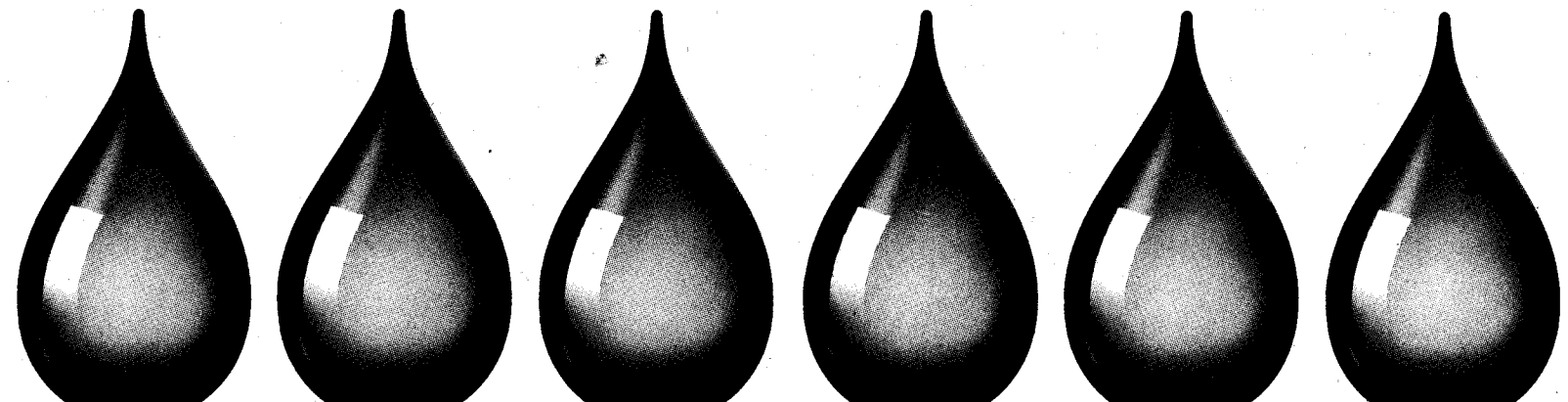
기존영화의 상업성배제



지난해 광주항쟁을 다룬 16mm장편극 영화 ‘오! 꿈의 나라’를 제작하여 20만의 관객을 동원하고 또한 서대문 경찰서의 영장청구기 법원에서 기각당함으로써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킨 영화제작소 장산꽃매가 후속작품으로 장편 노동영화 ‘파업전야’를 제작, 상영한다.

노조를 결성해 노동투쟁을 벌이고 있는 인천지역의 금속공장 작업현장에서, 현장노동자들의 함축 촬영을 통해 노동영화의 사실성과 실천성을 동시에 재현하고 있으며, 영화 상영은 오는 6월부터 15일까지 ‘예술극장 한미당’에서,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신선소극장’에서 갖게 된다.

석유 한방울로 부터
선경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석유를 처음 발견했을 때만 해도 오늘날처럼 인류에게 중요하게 사용될 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석유는 에너지로써만 아니라 석유화학의 기초원료로 사용됨으로써 현대산업의 총아가 되었습니다.

선경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석유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잘 활용하에서 비롯됩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선경은 산유국의 꿈을 키우며 해외유전개발에 앞장서 북예멘 마르비 유전, 남미 에코르 B-12 광구, 미얀마 블록 C 광구등을 개발,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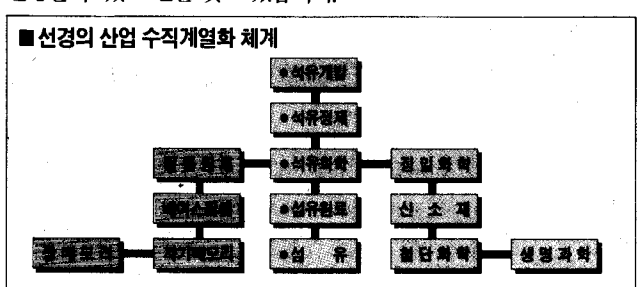
특히 선경은 국내 최초로 ‘석유에서 섬유까지’ 산업의 수직계열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선경의 수직계열화는 석유개발, 석유정제, 석유화학 기초원료에서 부터 최종제품인 섬유 및 베이스 필름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일관생산체계를 말합니다.

이로써 선경은 21세기 세계일류의 종합에너지·종합화학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바탕을 마련하였습니다.

세계가 함께 공존공영해야 할 21세기.

다들 그날을 위하여 선경은 석유 한 방울로 부터 인류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SUNKYONG
鮮京그룹

(주)선경·선경인더스트리·(주)SKC·선경메그네틱·세라론위키탈·선경건설·(주)유공·(주)유공상사·유공해운